

# 18번홀 6m 버디... 58만弗 쏘~옥

## ‘미키 마우스’ 지은희 LPGA US여자오픈 역전 우승 보너스 3억 8천만원도... 김인경 3위 등 한국 5명 톱10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18번홀(파4) 그린.

신중하게 라인을 살피던 지은희(23·힐라코리아)가 퍼터를 들었고 붉은 거짓말처럼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미키 마우스’ 지은희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역전극을 펼치며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지은희는 우승 상금은 58만5천달러와 함께 소속사인 힐라코리아가 주는 보너스 3억 8천만원도 받게 됐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다.

전반에 보기 3개, 버디 2개를 곁들여 1타를 잃은 지은희는 10번홀(파4)에서 빼어난 더블보기를 적어내 우승권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지은희의 힘은 13번홀(파4)부터 발휘됐다. 두번째 샷을 홀 50cm 옆에 붙여

가볍게 버디를 낚은 지은희는 14번홀(파4)에서 20m나 되는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리며 공동 선두 그룹에 합류했다.

공이 더 이상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홀아 웃하면서 남은 것은 지은희와 커의 승부.

지은희와 같은 챔피언조에서 경기하던 커는 지은희가 계속 따라붙자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16번홀(파4)에서 1.2m짜리 파파트마저 놓치면서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16번홀과 17번홀(파3)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한 지은희는 마지막 홀에서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타샷을 페어웨이로 잘 보낸 지은희는 167야드를 남기고 친 두번째 샷을 그린에 올렸지만 홀과는 6m 정도 떨어져 승부는 연장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지은희는 ‘연장전 승부는 필요없다’는 듯 깨끗이 버디 퍼트를 성공하며 캐디 잭 오스틴과 열쇠안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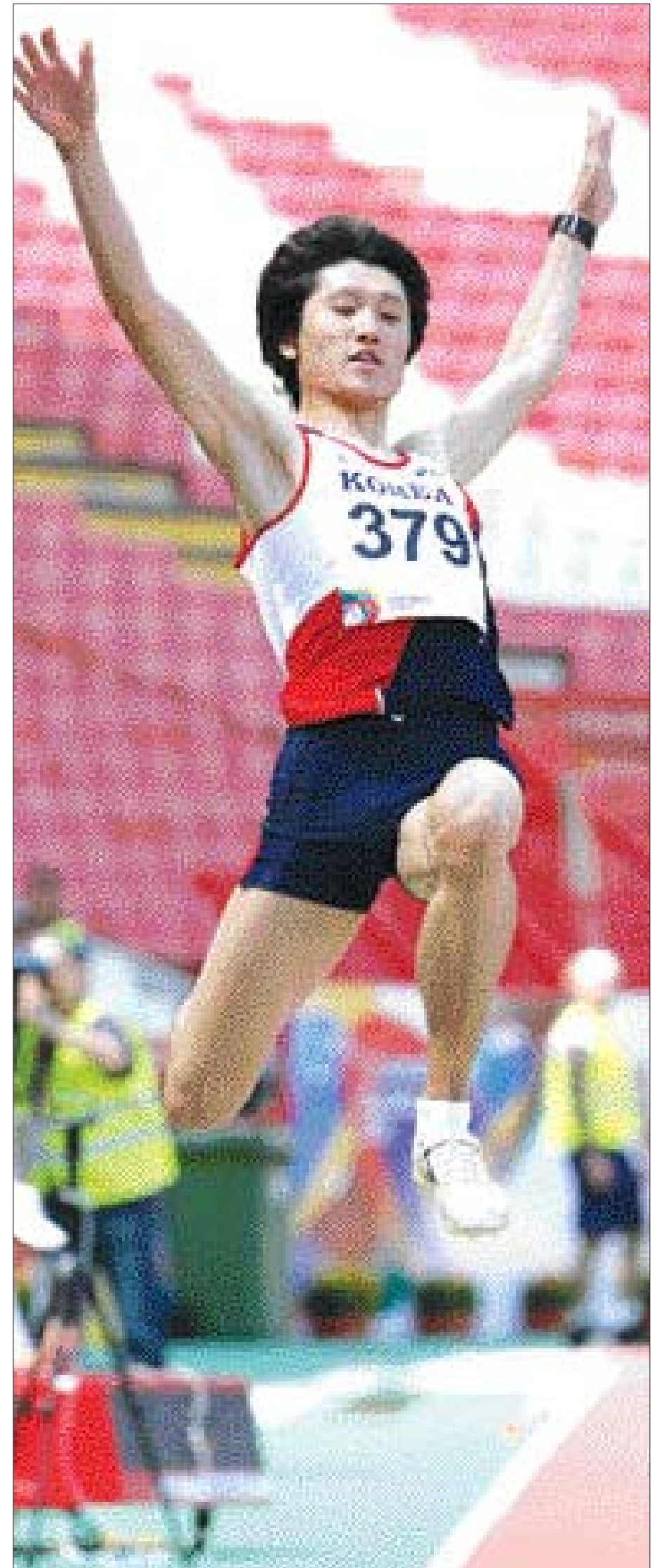
김인경(21·하나금융)도 뒷심을 발휘하며 한 때 공동 선두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 홀에서 1타를 잃어 아쉽게 공동 3위(2오버파 286타)에 머물렀다.

이밖에 최나연(22·SK텔레콤)과 배경은(25), 박희영(22·하나금융)이 공동 9위(5오버파 289타)에 오르는 등 우승자 지은희를 포함해 한국 선수 5명이 톱10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달 US여자아마추어 퍼블릭링크스에서 우승한 송민영(20)은 12위(6오버파 290타)를 차지해 아마추어 선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 신지애(21·미래에셋)는 한국 무대에서 단팍이었던 안선주(22·하이마트)와 함께 공동 13위(7오버파 291타)에 올랐다. 상금 5만9천428달러를 보낸 신지애는 시즌 상금 1위(107만7천451달러) 자리를 지켰고 커가 104만959달러로 뒤를 이었다.



지은희가 1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베들레헴의 사우관밸리 골프장에서 열린 US여자오픈골프 최종라운드 18번 홀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레드스타 경기장에서 열린 제25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멀리뛰기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덕현이 8m 20cm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김덕현의 금메달로 한국은 종합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 ■ 새 메이저 퀸 지은희 일문일답

“이게 골프구나. 안될 때도 있지만 또 갑자기 잘 될 때도 있는 그런 거요”

‘미키마우스’ 지은희가 13일 US여자오픈골프대회 최종라운드에서 18번홀(파4) 6m짜리 버디 퍼트를 넣어 우승이 확정된 뒤 인터뷰에서 “파 세이브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쳤는데 홀에 빨려 들어갔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지은희는 아침에 일어나니 갑자기 목이 뻐뻐하고 통증도 있어 마사지를 받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 여파로 전반에 다소 부진하다가 10번홀(파4)에서는 더블보기를 하면서 선두와 3타차로 벌어지며 우승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지은희는 남은 8개 홀에서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해 끝내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녀는 “더블보기를 한 뒤 오히려 마음이 비워지더라”며 실수에 감사함을 표하는 여유도 보였다. 다음은 지은희와 일문일답.

-최고 권위의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소감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 너무 기분이 좋다. 내 생애 가장 기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10번홀에서 더블보기를 하면서 우승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 후반에 선두를 따라 잡게 된 계기는 뭔가.

▲전반 후반에 그린 위에 올린 홀이어서 오늘도 드라이

## “10번홀 더블보기 전화위복”

버로 쳤는데 범벅에 빠졌다.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스샷이 나왔고, 결국 더블보기를 했다. 그 이후로 3오버파가 되면서 마음을 비우게 됐다.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캔디공과 공동선두를 이루고 마지막 18번홀 그린에서 6m 퍼트를 앞에 두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캔디 공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경기 도중에 리더보드를 보고 알았다. 그 이후로 특별한 생각은 없었고, 내 플레이만 하자는 생각으로 게임에 집중했다. 마지막 홀에서는 파만 하자고 생각하고 샷을 했다.

-마지막 퍼팅할 때 심장이 어땠나.

▲정말 많이 떨었다. 손이 덜덜 떨리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파 세이브만 하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퍼팅을 했는데 홀컵에 빨려 들어가더라.

-그때 기분이 어땠나.

▲해냈다. 해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특별히 떠오르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기뻐다. 엄마를 보니까 눈물이 나왔다. (우승이 확정된 뒤 지은희는 어머니 번광일씨와 부동겨 안고 감격을 함께 나눴다. 어머니는 흐느꼈고 딸의 눈도 젖어 들었다)

-이번 우승에서 가장 1등 공신 샷이 있다면.

▲드라이버다.

-드라이버를 최근에 교체했다고 들었는데

▲ 그동안 드라이버가 자꾸 훑이 나서 2주전에 캘러웨이 FT 3에서 캘러웨이 FT 9으로 바꿨고, 지난번 대회 때 드로 헤드에서 뉴트럴로 다시 바꿨다. 각도도 원래 8.5도를 썼는데 이번엔 7.5도로 바꿨다. 그동안 공이 많이 뜨고 런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바꾸고 나서 런이 많이 생겼다.

-이번에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같이 계시던데.

▲ 원래 아버지가 계속 따라 다니셨는데, 3주전에 아버지가 서울로 들어가시고 어머니가 이번 경기내내 함께 따라다녔다. 서울에서 KLPGA 첫 우승할 때도 캐디를 하던 아버지가 못오셔서 하우스 캐디와 함께 우승했었는데...(웃음)

-캐디(잭 오스틴)와는 잘 맞는지.

▲ 작년 부터 함께 해 오면서 호흡이 잘 맞았다. 특히 다른 선수 캐디들은 경기 때만 오는데 작은 거의 저와 이동도 함께 하고 잘 챙겨준다. 오늘 10번 홀에서 더블보기 했을 때 “괜찮다(That's OK)”고 격려해 줬다.

-앞으로 계획은.

▲ 오늘 밤에 서울로 돌아갔다가 2주후 열리는 에비앙마스터스에 출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김덕현 8m20cm 날았다

### 한국신 세우며 금메달 U대회 종합 3위 도약

이번 베오그라드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김덕현(광주시청·조선대학교학원)의 금빛도약은 한국선수단에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

예선 3위로 결승에 올라온 김덕현은 12일 밤(한국시간) 베오그라드 FC레드스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멀리뛰기 결승 5차 시기에서 한국신기록인 8m20을 뛰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김덕현은 3차 시기에서는 유니버시아드 기록 8m40을 1cm 넘어서는 8m41까지 뛰었지만 뒷바람이 초속 2m를 넘어(초속 3.5m)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덕현이 따낸 메달은 이번 대회 육상에서 따낸 첫 금메달이다. 이전까지는 남자 창던지기 박재명(한국체대 대학원)의 동메달이 유일한 메달이었다.

광주시청 심재용 감독은 김덕현의 금메달 소식을 듣고 “멀리뛰기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획득한 금메달이 지난 세단뛰기에서 무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러시아	27	22	27
2	중국	22	21	15
3	대한민국	21	11	15
4	일본	20	21	32
5	미국	13	13	13

릎이 안좋아 5위에 그친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버렸다”면서 “이 상생세를 다음달 독일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이어가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 출신 선수들은 육상·태권도 등 4개 종목에서 금 2개, 은 1개, 동 1개의 맹활약을 펼쳤다.

김덕현(남·광주시청·육상)·정진희(여·광산구청·태권도)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종합 3위 도약을 큰 힘이 되었다. 수영에선 김달은(여·HJ코리아)이 은메달, 유도에서 황예슬(여·한국체대)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메달레이스에 힘을 보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ju.co.kr /연합뉴스